



꿈꾸는 리더가 세상을 바꾼다



송영수
한양대학교 교수

- 미국 플로리다주립대 교육공학 박사
- 삼성인력개발원 상무
- 대한리더십학회 회장
- 한국산업교육학회 회장
- 한양대 교육공학과 교수
- 한양대 인재개발원장 겸 리더십센터장

#1. 꿈은 나이와 관련이 없다.

대만에서 있었던 사례이다. 젊었을 때는 꿈을 향해 모터사이클을 몰며 달려 나갔던 청년들이 세월이 흘러 심장병, 고혈압, 암 등 노인병을 한 두 가지씩 갖고 사는 80대 노인이 되었다. 그 와중에 친구가 또 세상을 떠났다는 전화가 걸려왔다. 장례식장에 모인 옛 친구들이 다시 머리를 맞대고 그 옛날 젊은 시절로 돌아가자고 외치면서 몸을 만들기로 했다. 드디어 평균연령 81세인 5명의 노인이 먼지가 오랜 기간 쌓인 모터사이클을 꺼내 기름을 치고, 정비했다. 그들은 세상을 떠난 친구의 영정사진을 매달아 '함께한다'라는 의미와 함께 질주하기 시작했다. 13일간 대만의 주요 도시를 돌며 1,139km를 함께 달렸으며, 동서남북을 주야로 함께 주행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 이유는 단순하다. '꿈'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이 사례는 대만 TC 뱅크가 홍보영상으로 제작이 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80대 노인들의 젊음으로의 도전은 아무것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살 것이 아니라 도전하는 삶과 실천하는 인생을 추구하기 위함일 것이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느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말하며 그것은 장미빛 용모, 앵두 같은 입술, 나긋나긋한 자태가 아니라 강인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는 열정을 말한다”라고 사무엘 올만은 말했다. 또한 그는 “때로는 이십세 청년보다 육십세 된 사람에게 청춘이 있다. 나이를 먹는다고 늙지 않는다. <이상>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 것이다”라고 이상, 꿈, 비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Here and Now)’이 소중하기에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 리더는 구성원들의 행복을 책임을 지는 사람인 것이다.



#2. 꿈과 비전은 리더의 절박성이 있어야 한다

눈발이 날리던 추운 겨울날, 설문지를 들고 어느 예술 고등학교 3학년 졸업반에 연구조사자들이 들어선다. 그들은 수능 이후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한다. 설문지의 질문은 “만약 살 수 있는 날이 향후 1년밖에 안 남았고 할 때,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 현금 ‘5억 원’ 중 무엇을 선택하겠는가?”하는 질문이었다. 그리고 같은 시간에 학교 밖에서는 설문에 응하는 학생들의 아버지들에게 같은 질문을 했다.

양측의 답은 분명하게 갈렸다. 학생들은 ‘꿈’을 택한 사람이 많았다. 큰 꿈을 이루어 족적을 남기겠다는 이야기부터 의미와 가치가 있는 인생을 살겠다는 의지가 높았다. 꿈을 이루면 5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반면 학생들의 아버지들은 꿈 대신에 ‘5억 원’을 택한 사람이 많았다. 40대 중후반~50대가 주류를 이루는 전통세대 또는 꼰대세대로 불리는 중산층의 아버지 세대들은 자신들의 불확실한 ‘꿈’을 이루기보다는 가시적인 ‘현실’을 택한 것이다. 아버지들은 자식들에게 5억 원을 물려 주어 자녀들이 하고 싶어 하는 극장을 운영한다든지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싶다는 등 자녀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도와주고 싶다고 응답했다. 아버지들의 인터뷰를 영상으로 시청한 고3 학생들은 눈시울을 적셨다.

지금 우리는 더욱더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

시대와 패자부활전이 없는 토너먼트식 경기운영 방식의 사회에 살고 있다. 한 번 낙오나 실패하는 경우 경영의 중앙 무대에서 사라져야 하는 무언의 규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꿈과 비전은 언제 필요한가? 사업을 시작할 때, 위기가 왔을 때, 제2창업이 요구될 때, 변화를 시도해야 할 때 등이다. 즉 항상 필요하고, 지금도 필요하다.

리더인 당신은 지금 조직과 개인차원의 꿈과 비전을 갖고 있는가. 필요에 의해서라면 비전은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시력은 있으나 비전은 없는 것이 가장 불행하다는 헬렌 켈러의 외침을 상기하자. 꿈이 없는 사회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리더는 미래를 꿈꿔야 한다.

#3. 포기만 않으면 꿈은 언젠가는 이루어진다.

2002년 5월~6월 한일 월드컵을 돌아보자. 당시 한국축구의 소망은 자력으로 16강을 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기적이 일어났다. 축구 강호인 폴란드, 포르투갈, 그리고 이탈리아까지 무너뜨리면서 세계 4강이라는 역사에 남을 사건이 벌어졌다. 여기서 거스 히딩크라는 걸출한 감독과 박지성, 홍명보, 이영표, 이천수, 이운재 선수 등 한국축구를 빛낸 얼굴들이 지금도 월드컵 레전드로 지워지지 않는 추억이 되어 우리들 가슴에 남아있다.

그 당시 한국응원단이 보여 준 ‘꿈은 이루어진다’는 카드섹션으로 응원하던 장면이 떠오른다. 세계 4강이 결정된 순간 히딩크 감독의 말 “아

직 배고프다. 우리는 세계축구를 놀라게 할 것이다. 가능성은 50%이다. 매일 1%씩 올려 100%를 만들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꿈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 꿈 너머 꿈이 있으면 위대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다. 꿈에다가 언제까지 이루겠다고 날짜를 적어 넣으면 목표가 되고 목표를 잘게 나누면 계획이 되며, 계획을 열정을 갖고 추진하면 성과가 나온다는 것이다. 간단히 줄이면 ‘꿈은 이루어진다. 포기하지 않는 한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는 꿈 이야기는 지금도 가슴이 벅차오른다.

#4. 꿈은 크고 위대해야 한다.

‘하버드대 졸업생은 마지막 수업에서 만들어진다’라는 도서에 나오는 사례이다. 하버드대 MBA코스에 참가 중인 학생들이 교양을 넓히고자 ‘조류학’을 신청하여 수업에 참가하던 중에 기말시험에 대한 안내문이 학생들에게 공지되었다. 시험 장소는 매섭게 추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건물이 아니라 운동경기 때 사용하는 스타디움으로 오라는 것이다. 많은 학생들이 불평을 하거나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고 항의를 하기도 했다. 그때마다 조교는 스타디움에 오지 않으면 학점은 ‘F’가 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드디어 시험시간이 되었고, 추운 겨울이라 장갑을 끼고 운동장에서 시험을 맞이하는 학생들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다.

조교가 나타났고 시험문제가 나오기를 기다렸

다. 조교는 새를 한 마리 들고나왔는데 새 몸통을 모두 천으로 가리고 발톱만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시험답안지 작성을 지시했는데 시험문제는 다음과 같다. ‘한 학기 동안 배운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전문가적 입장에서 이 새의 특징을 기술할 것(새의 이동 패턴, 짝짓기 습관, 무리 이동경로뿐 만 아니라 종명과 속명까지 기록하기 바람)이었다. 분위기가 슬렁거리기 시작했다. 시험이 왜 이러냐고 불평도 섞이면서 조교와 살랑이를 벌리고 있을 때 담당 교수가 나타났다. 담당교수가 말했다. “여러분들은 미래 기업 CEO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VUCA 시대처럼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의 시대에는 새의 발톱만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정답은 모릅니다. 여러분의 상상력과 창의력만큼 답이 완성될 것입니다. 불확실성의 시대! 당신 자신을 믿기 바랍니다.” 슬렁거리던 분위기는 사라졌고, 시험은 무사히 진행이 되었다.

조직은 리더의 그릇 크기만큼 성장한다고 한다. 오랜 기간 회자되고 있는 VUCA(Volatile, Unpredictable, Complex, Ambiguous)라는 트렌드 용어는 Vision, Understanding, Clarity, Agility 등의 의미로 바꾸어서 적용할 수 있다. 과거에 발생한 사건들을 지울 수도 바꿀 수도 없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할 수 있다. 불확실성의 시대를 좌절과 아픔의 시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이런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2류라면 1.5류로, 1.5류라면 1



류 또는 특류로 가는 기회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꿈과 비전을 세울 때, 가능한 한 크게 그리라는 것이다.

맺으며

수년 전 광화문 네거리를 운전하고 지나는데 인상적인 현수막이 어느 빌딩에 걸려있었다. 어

느 시인이 쓴 시의 한 구절이었다. 주요부문만 인용하면 이렇다. [푸른 바다에 고래가 없으면 바다가 아니지 고래 한 마리 키우지 않으면 청년이 아니지....]. 단어를 바꿔서 불러보자 [푸른 바다에 고래 한 마리 키우지 않으면 리더가 아니지....] 각자 가슴속에 고래 한 마리 키우는 꿈과 비전의 리더가 되자. **KIIF**

